

시간의 조각(fragment)과 연장된 조각(sculpture)

한의정_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초빙교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경험의 연속이다. 자고 먹고 일하는 일상적인 경험은 물론, 예기치 않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기념일을 기억한다거나,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하늘에 감동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까지 우리의 세계는 크고 작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만남을 훗설과 메를로-퐁티와 같은 현상학자들은 생활세계의 체험(lived experience)이라 했고, 베르그송과 들뢰즈는 사건(event)이라 부르며 의미 부여를 했다. 우리는 나중에 기억하고 싶은 만남, 체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진으로 그 일시적인 순간들을 붙들어보려 한다. 하지만 순간 그 느낌을 포착했다고 생각한 사진들은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 카메라의 시선과 내가 경험한 실재 사이의 간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속 연속 사진으로 수십 장 셔터를 눌러보아도 해결되지 않는다. 셔터와 셔터 사이로 피사체의 동작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사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세한 감정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사진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과 사람과의 만남을 오롯이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불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강주현의 작품세계는 시작되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당 부분 촉각적인 것이다. 피부를 통해 만지고 만져지는 촉각뿐만 아니라 눈이 대상을 더듬듯 만지는 촉지적(haptic) 경험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사진으로 순간을 포착하거나, 캔버스 위에 형상을 똑같이 재현하거나, 또는 조각의 질료 속에 가두어서 표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강주현의 <Skin Suit>(2010)에서 옷이 피부가 되고, 피부가 자아가 되어버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이전의 <Dupe-Style>(2009)에서 '감각의 옷'으로 자아정체성을 표현하려던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감각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아크릴 박스를 버리고, 그의 피부자아(skin-ego)들은 비로소 비상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작가는 우리의 감각 경험이 몸을 관통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오토바이를 탈 때 모든 피부로 부딪히게 되는 칼바람과 같이 증폭시켜 표현해냈다.

기본적인 골격 위에 가늘고 길게 자른 사진을 촘촘히 붙여 나가되 일정 부분을 허공에 훑날리게 만드는 그만의 독창적인 작업 방식은 조각에 시간성과 운동성을 부여해주었다. <Skin Suit>부터 2012년까지 그의 작업들, 예를 들어 <Image Swing>(2011), <A Drawing for Changing Energy>(2012)에서 형상은 보이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또는 시계추처럼 운동한다. 이러한 운동은 보폭은 크지 않지만 힘과 감각의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Combined Sense Project-The Swish of a Hand>(2011)의 '만지는 눈' 또는 '보는 손'으로 된 프로펠러 운동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운동을 거듭하며 주위의 대상들에게 수많은 촉수를 보내며 치덕치덕 들러붙을 듯한 환영까지 불러일으킨다.

강주현은 이것을 "공간에 그리는 드로잉"이라 표현한다. 종이 위에 그리는 수많은 흔들리고 유약한 선들이 하나의 형체를 이루듯이, 그가 공간에 만들어낸 형상들은 자신을 이루는 텍스처의 결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드로잉의 선들은 한순간에 고정된 상태로 닫혀 있지 않고 어느 한쪽이 열려 다른 시공간으로 향하는 지향성(intentionality)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시간을 머금은 드로잉-흔들리는 문>(2013)은 마치 실재하는 문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간과 공간을 분할하고 서로 연결하는 실제 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문의 경첩이 어디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열고 닫음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짝 자체도 삼등분으로 나뉘어 흔들리며 위태롭게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러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공간적 분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 문은 또 다른 시간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마치 달리의 시계처럼 흘러내리는 이 문의 나이트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기 직전까지 감내했을 세월의 고통과 상처를 켜켜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주현이 길에 버려진 사물들에서 삶의 흔적을 읽어내고 그 흔적 위에 사진, 조각, 드로잉이라는 가상 세계의 레이어들을 겹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의 시공간의 반경도 무한대로 확장된다. 그렇기에 타임 슬립 영화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백 튜더 퓨처”의 자동차 ‘드로리언’이 그의 <시간을 머금은 드로잉-드로리언>(2013)의 소재가 된 것은 자연스럽다. 작가는 드로리언의 몸체를 재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시공간으로 달려가는 과정을 담아내기 위해 바퀴, 머플러, 전조등 등의 부품들이 날렵하게 허공을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제부터 형상의 운동은 더 이상 중심을 향하지 않으며 파편들은 각각 지향하는 시공간으로 확장되어 들어간다. 이 부품들은 사진의 조각조각이 이어져 만들어졌지만, 여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담지 못하는 사이-순간들이 표현된다. 강주현의 사진 조각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다. 순수한 시간과 공간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공간 속에서 흘러가며, 공간은 사물과 함께 탄생한다. 다른 개체와 교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탄생하여 살아가는 존재는 없다. 강주현의 작품은 시공간 속에서 이러한 대상들 간의 교감, ‘세계-에로-존재’(être-au-monde)들의 상호 소통의 흔적을 담는다. <사유된 공간>(2014)은 쿤스트독의 프로젝트 전시공간인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보다 먼저 지나간 작품들의 흔적을 불러오는 작업이다. 박스 내부에 남겨진 이전 전시의 색의 흔적들을 주의 깊게 바라본 작가는 과거의 시공간으로 가버린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오는 초흔 의식을 치러낸다. 과거는 현재로 회귀되고 현재는 또다시 바람에 날리는 연과 같이 날아가고 있는 박스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열린다. 이 공간에서 시간은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흐르지 않으며, 과거-현재-미래는 중첩되고 동시에 공존한다. 그렇다고 이 공간이 카오스의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날아다니는 컨테이너 박스와 프레임은 육중한 철제로 보이지 않고 숨털처럼 우주 공간에 자유롭게 유평하는 듯 보인다. 이 자연스러운 평온함은 아마도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다. 세계라는 시공간의 축소판으로서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속에 다시 반복되는 프레임들, 즉 삼중의 미장아 빔(mise en abyme) 구조인 것이다.

강주현의 사진, 조각, 드로잉의 혼합은 각 매체가 가지는 고유성을 역으로 사용하거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사각 평면의 사진은 길게 잘려나가 조각(fragment)이 되었다가 3차원의 공간 속에 놓인 조각(sculpture)이 된다. 강주현의 조각은 육중한 재료 속에 형상을 가두지 않고 연장(extension) 너머의 시간으로 뻗어 나간다. 이렇게 공간예술과 시간예술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작가가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드로잉의 결과이기도 하다. 드로잉은 작품을 시작하기 위한 습작으로 그치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지만, 강주현에게 드로잉은 처음이자 끝이다. <드로잉-뒤로넘어지는의자>(2015)는 그 모습 그대로 <뒤로넘어지는의자>(2015) 조각이 된다. 의자가 넘어지는 시간을 그대로 머금은 채로 말이다. <드로잉-세번돌려그리는선>(2015), <드로잉-곧게영키게다시곧게그리는선>(2015)의 손(들)이 그리는 선(들)은 촘촘히 겹쳐져 또 하나의 커다란 존재를 그려낸다. 존재의 본질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에서 생성되고 변하고 소멸되는 ‘지속’에 있다고 한다면, 강주현이 “공간에 그리는 시간을 머금은 드로잉”들은 이 존재의 본질에 닿아 있다. 관객들이 강주현의 변형되고 확장된 공간의 드로잉이 낯설지 않게 느끼는 것은, 내 몸의 삶과 대상의 삶이 부딪쳐 얻은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한의정(HAN Eui-Jung)은 1975년에 태어났으며, 홍익대 예술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 석사, Paris X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주요 저서로는 『*Expression et Ambiguïté*』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아르 브뤼(Art brut)에 관한 소고」 등이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Fragment of Time and the Extended Sculpture

HAN Eui-Jung

Visiting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Studies

Living day by day, our lives are a series of numerous experiences. From the everyday experiences of sleeping, eating, and working to the very special moments of meeting an unexpected someone, remembering an anniversary, or being touched by the beautiful sunset, our lives are full of big and small encounters. Phenomenologists like Husserl and Merleau-Ponty later dubbed such encounters the 'lived experience', and Bergson and Deleuze signified and referred to them as 'events'. Every time we face an encounter, experience, or incident that we would like to remember in the future, we attempt to hold on to the temporary moments with photographs. But the photos that we had thought would capture the sensation of the moment very often disappoint us when we look at them at a later date. This i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perspective of the camera and the reality we experienced. Pushing the camera shutter dozens of times for continuous shooting doesn't solve it. This is because between each shutter, not only the actions of the subject but our minute feelings get away. The dissatisfaction that photographs cannot fully embody the encounter between object and human that we experience – it is from this point that the art of Kang Juhyeon starts.

In fact, our experiences are much more tactile than we think. Because they encompass not only the sense of touching and being touched, but also the haptic experiences of the eyes fumbling the object. Such experiences are difficult to portray by capturing the moment through photo, identically representing the form on canvas, or confining it inside the matter of sculpture. Such is the reason why in Kang's <Skin-Suit>(2010), the apparel becomes the skin and the skin becomes the self. With this piece, he has taken one step further than the previous attempt with <Dupe-Style>(2009) to express his self-identity through 'clothing of sensation'. Having discarded the acrylic box that could not but limit the movements of the senses, his skin-egos were finally ready to fly. The artist was intuitively aware that our sense experiences penetrate the body, and expressed them in an amplified manner, as if the sharp wind that hits the entirety of the skin when riding a motorcycle.

His unique work method of cutting the photos in long thin strips, finely pasting them on a basic frame, but making certain parts flutter in the air, provides the sculpture temporality and movement. In his works from the Skin Suit to the productions of the year 2012, such as <Image Swing>(2011) and <A Drawing for Changing Energy>(2012), the forms move in a spiral or like a pendulum against an invisible axis. Such movements may not have long strides, but are advantageous in maximizing the intensity of power and sense. Thus, the propeller-movement of the 'touching eyes' or 'seeing hands' of <Combined Sense Project – The Swish of a Hand>(2011) rotates at a tremendous speed as they bring about an illusion of sticking numerous tentacles on nearby objects.

Kang refers to this as "drawings drawn on space". Just as numerous frail and shaky lines constitute a form on paper, the forms he produces in space reveal the grains of their texture. The lines of these drawings are not confined in a fixed state of one single moment, but with one side open, they portray an intentionality toward a different time and space. For instance, <Drawing

which holds time – *Faltering Door*>(2013) takes up space as if a real door, but does not serve the actual function of dividing and connecting a space from and to another. Not only is the hinge of the door not connected to anywhere, so there is no significance in opening and closing, but the door itself is divided into three pieces, thus shaking and about to fall down. But instead of not being able to function as a spatial division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this door leads us to the realm of a different time. This is because the growth rings of this door, melting down like Dalí's clock, convey the accumulated pain and wounds that the door had suffered through until ultimately being thrown away on the street.

It was as Kang started to read the trace of life from the objects discarded on the streets, and overlapped the layers of a virtual world in the form of photographs, sculptures, and drawings on top of that trajectory, that the range of his art's time and space started to infinitely expand. It is thus a natural course of action that the car De Lorean from "Back to the Future", the classic of time-slip films, was adopted as the subject matter for his <*Drawing which holds time – De Lorean*>(2013). The artist did not reconstruct the body of De Lorean, but rather portrayed the parts of wheels, muffler, and headlights in a format of deftly flying across the air, in order to convey the process of running into a different time and space. From here on, the movement of forms is no longer directed toward the center, and the fragments are extended into the time and space that each pursues. While these components were fabricated by putting together the fragments of a photo, they are able to convey the in-between moments that a single photograph cannot. In Kang's photo-sculpture, time flows without stopping.

Every object in this world we experience is placed within our time and space. It is not about designating a pure time and space, but all time flows in space, and space is born along with objects. No being is born and lives independently without interacting with another being. Kang's works embrace such interaction between objects in time and space, the trace of inter-communication among various 'being-in-the-world (*être-au-monde*)'. With <*Space Being Thought*>(2014), Kang summoned the traces of works that had earlier passed through a particular container box, the project exhibition space of Gallery KunstDoc. Carefully observing the traces of colors of previous exhibitions left in the box, the artist performed a ritual of calling the spirit of the container box that has already moved on to the past back into the 'here and now'. The past returned to the present, and the present opened up toward the future along with the boxes flying in the air like kites. In this space, time does not flow in the order of past-present-futu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overlapped, and coexist at the same tim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pace was led to a state of chaos. The flying container box and frame do not look like heavy steel, but rather like fluffy feathers freely floating around the cosmic space. We feel a sense of natural tranquility here probably because it is similar to our lives. The container box as the miniature version of our world and its time and space, the frames yet again repeated inside the container box. In sum, it is the structure of a triple *mise en abyme*.

Kang's mixture of photograph, sculpture, and drawing employs the uniqueness of each medium in reverse and transcends each limit. A photograph of a square plane is cut into long fragments, which then become a sculpture placed inside a three-dimensional world. Kang's sculpture does not confine the form inside heavy material, and instead stretches out into the time beyond the extension. Being able to go back and forth the boundary between spatial art and temporal art is the result of the drawings that the artist constantly produces. Drawings have the innate limit of

being no more than a sketch for artwork, but for Kang, drawings are the beginning and the end. <DRAWING – A Chair that falls back>(2015) becomes, just the way it looks, the sculpture <A Chair that falls back> (2015). All the while holding on to the time of the chair falling down. The line(s) drawn by the hand(s) of <Drawing – Line Drawn In Three Twists>(2015) and <DRAWING – Lines Drawn Straight, Tangled, and Straight Again>(2015) are densely overlapped, painting yet another giant being. If the essence of being lies not in eternity but 'persistence', which changes and dissipates inside a certain time and space, Kang's "drawings drawn on space and holding time" in fact touch such essence of being. The audience does not deem his drawings of a distorted and extended space unfamiliar because they are not different from the numerous experiences that each has accumulated so far by bumping one's own flesh to that of the object.

*HAN Eui-Jung was born in 1975. She studied Art Studies at Hongik University, received her MA from the Department of Aesthetics in the same school, and her PhD at Paris X University. Significant publications include *Expression et Ambiguïté* and "A Study on the Category and the History of Art Brut". She currently works at Hongik University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rt Studies.